

세계 정상 항공우주산업체(19)



유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한 이탈리아 핀메카니카

핀 메카니카(Finmeccanica) 그룹은 항공우주, 방산 및 보안 분야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유럽에서 3대 기업 중 하나다. 특히 헬기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분야는 유럽에서 1위, 전세계 3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군수용 전자장비 또한 유럽에서 2위, 전세계에서 6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 후반부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당시 전자장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던 셀레니아(Selenia), 엘작(Elsag), SGS를 다시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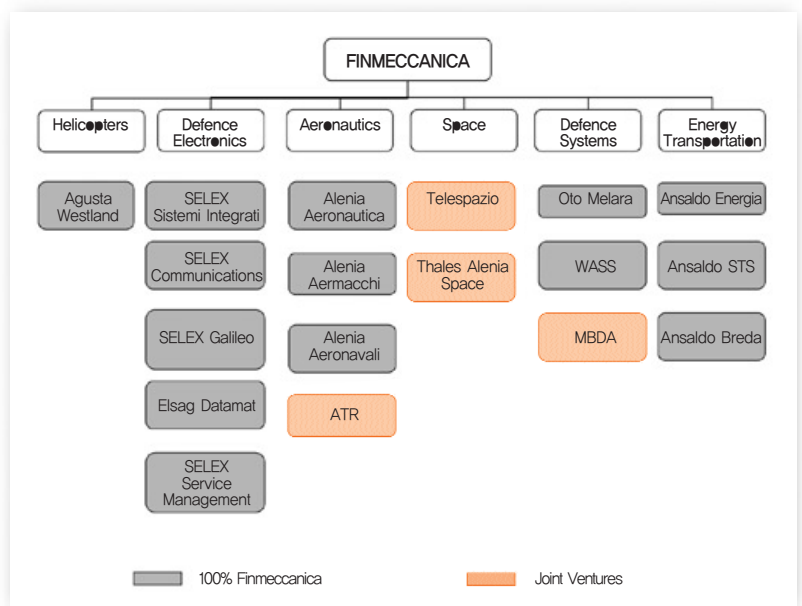
여러 자회사를 두면서 몸집이 커진 핀메카니카는 기존 에너지 및 산업 플랜트, 수송용 장비,

60년의 전통

핀메카니카는 1948년 3월 18일, 이탈리아 산업부흥공사(Italian Institute for Industrial Reconstruction, IRI)가 설립한 회사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대표 항공우주기업이다.

설립 초기 핀메카니카는 자동차, 선박건조, 철도 사업에 주력을 했고, 당시 새로운 분야인 전자장비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핀메카니카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및 전자 사업부를 처분하고, 이후 1970년대에는 회사 구조를 대폭 바뀌어가면서 자동차(Alfa Romeo), 열전자기계(Ansaldo), 그리고 항공우주(Aeritalia, FIAT와 50/50 공동출자로 설립) 부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핀메카니카는 전자기계 및 항공우주 부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가운데 1980년



핀메카니카 그룹 구성

항공우주 분야를 비롯해 민간용 장비, 자동화설비, 지휘 및 통제 장비, 미사일, 생의학 장비, 로봇, 마이크로 전자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1990년에는 아에르이탈리아와 셀레니아가 알레니아(Alenia)로 통합되면서 알레니아가 항공기를 비롯해 군사용 전자장비, 미사일,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장비를 개발하게 됐다. 이와 함께 엘작이 배일리(Bailey)를 인수하면서 핀메카니카는 자동화처리 및 서비스 분야에까지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다. 1991년에는 안살도 에너지아(Ansaldo Energia)가 파브리카 터빈(Fabbrica Turbine)과 같다이 레냐노(Caldaie Legnano)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자회사인 안살도 GIE(Ansaldo GIE)와 안살도 콤포네티(Ansaldo Componenti)를 설립했다.

2000년 이후 알레니아 스파지오(Alenia Spazio)와 아구스타(Agusta)가 2000년 설립됐으며, 갈릴레오 아비오니카(Galileo Avionica)와 오토 멜라라(Oto Melara)가 2001년, 그리고 알레니아 에어로노티카(Alenia Aeronautica)가 2002년 설립됐다. 그리고 2002년, 군사용 위성 및 무선장비, 위성체계/서비스 개발 기업인 마르코니 모바일(Marconi Mobile, 현 SELEX Communications)과 OTE, 텔레스파지오(Telespazio) 등을 인수했다.

특히 핀메카니카는 아에르마키(Aermacchi) 인수와 피아트 아비오(Fiat Avio)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유럽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항공우주 및 방산 업체 중 한 곳이 됐으며, 또한 미국이 주관하는 F-35 JSF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핀메카니카는 알레니아 에어로노티카, 갈릴레오 아비오니카, 셀렉스 커뮤니케이션, 엘작 등의 자회사를 통해 신형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설계, 개발 및 생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GKN과 50/50 공동출자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를 설립함으로써 세계적인 헬기 제작사로도 거듭났다.

현재 핀메카니카가 진행 중인 사업에는 영국 육군과 해군이 운용할 퓨처링스와 영국 공군이 운용할 A109를 자회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생산할 예정이며, 영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시킹 헬기전력에 대해 정비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킹 통합운용지원(Sea King Integrated Operational Support, SKIOS)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해 그리스 및 불가리아가 기존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선정한 C-27J 스파르탄도 생산할 예정이다.

항공기 분야 외에 핀메카니카는 군수용 전자장비 부문에서 BAE 시스템스와의 협력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6번째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됐으며, 근무자만 하더라도 19,000명에 이른다. 특히 군사용 전자장비 사업부는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지상/해상/공중용 방어체계 및 센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셀렉스 시스템이 인테그라티(Selex Sistemi Integrati)와 항공전자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셀렉스 센서 앤 에어본 시스템스(Selex Sensors and Airborne Systems, 지분 75% 핀메카니카 소유, 25%는 BAE 시스템스가 소유), 그리고 군사용 및 보호용 통신장비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셀렉스 커뮤니케이션(Selex Communications) 등이 있다. 이 외에 군사용 전자장비 사업부 산하에 정보기술 및 보안장비 전문개발업체인 엘작이 있다.

핀메카니카는 또한 우주사업부에 알카텔과 함께 알카텔 알레니아 스페이스(Alcatel Alenia Space, 알카텔 지분의 67% 소유, 핀메카니카는 33% 소유)와 텔레스파지오(Telespazio)라는 2개의 합작회사도 설립했다. 이 중 알카텔 알레니아 스페이스는 알카텔 스페이스와 알레니아 스파지오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핵심사업

핀메카니카의 핵심사업은 크게 헬리콥터, 군용 전자장비, 항공기, 우주, 방산장비, 항공우주용 엔진 분야 등이다.



아파치 AH MK1

헬기생산 현황

AgustaWestland

Light : AW19Ke, AW109 POWER, Grand, AW109 LUH

Intermediate : AW129, Super Lynx, AB412, AW139, AW149, BA609

Medium : Apache AH MK1, NH90

Medium/Heavy : AW101, US101

• 헬리콥터

핀 메카니카의 헬기 개발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자회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gustaWestland)는 전세계 군용 및 민수용 헬기 개발업체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헬기 생산에 필수적인 초기 작전요구 분석, 설계, 트랜스미션 및 로터, 복합소재 구조, 그리고 항공전자장비 등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 군수용 전자장비

핀 메카니카는 BAE 시스템스와의 협력으로 현재 유럽지역 2위, 전세계 6위 규모의 전자장비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항공전자장비 및 군용 보안통신장비 개발업체들인 SELEX Galileo와 SELEX Communications, 그리고 SELEX Sistemi Integrati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외에도 Eltag Datamat와 Selex Service Management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항공기

항공기 제작은 핀 메카니카의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자회사인 알레니아 에어로노티카(Alenia Aeronautica)는 전술용 수송기 및 항공기, 무인기 등 민수용 및 군수용 항공기 제작 부분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에 속한다. 또한 훈련기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알레니아 아에르마키(Alenia Aermacchi)와 전세계 주요 항공기에 대한 우수한 성능개량 능력을 갖춘 알레니아 에어로나발리(Alenia Aeronavali)도 핀 메카니카 그룹에 속한 자회사이며, 그리고 리저널 항공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TR도 50%의 지분(나머지 50%는 EADS가 보유)을 핀 메카니카가 보유하고 있다.



C27J Spartan



ATR 42 MP Surveyor

항공기 생산 현황

Alenia Aeronautica

- C27J Spartan
- Eurofighter Typhoon
- Boeing 787
- KC-767 Tanker
- Airbus 380
- ATR 42 MP, ATR 72 ASW
- Sky-X

Alenia Aermacchi

- M 346, M 311, MB-339, SF 260

• 우주

핀 메카니카는 우주 분야에서도 역시 알카텔 스페이스(Alcatel Space)와의 협력으로 민수/군수용 위성 등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업체의 위치에 있다. 현재 핀 메카니카는 우주 분야에서 위성시스템 및 궤도선 인프라에 대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와 위성관리, 지구관측서비스, 위성 항법 등의 분야에서 전세계 주요 업체 중 하나인 텔레스파지오(Telespazio)를 운영하고 있다.

우주분야 생산 현황

Telespaz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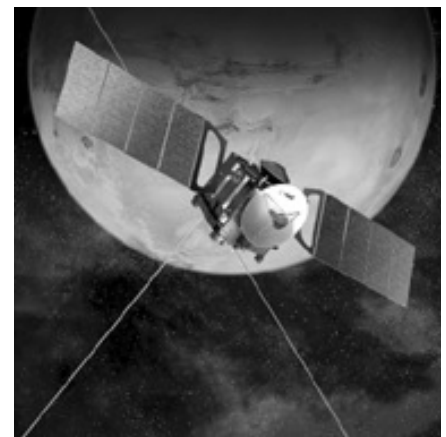
- Satellite Operations and Programs Development
- Navigation and Infomobility
- Earth Observation
- Network and Connectivity

Thales Alenia Space

- Mars Express, Cassini-Huygens, Gocce, Rosetta, Cosmo SkyMed, Galileo, Sicral

Galileo Avionica

- VIMS, Passive Hydrogen Maser, AA - Star Tracker



Mars Express

• 방산장비

핀 메카니카는 항공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미사일, 어뢰, 해상용 포 및 무장차량 등 방산장비 개발 및 생산에도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사일 생산업체 MBDA를 합작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장차량 및 해상/지상 포 전문제작사인 오토 멜라라(Oto Melara)와 어뢰제작 업체인 WASS(Whitehead Alenia Sistemi Subacquei)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MBDA Meteor Missile

• 항공우주용 엔진

핀 메카니카는 엔진 제작업체인 아비오(Avio)를 통해 해상 및 항공우주용 엔진 생산에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 핀 메카니카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비오는 주요 민수 및 군수용, 우주분야 엔진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재정현황

■ 2006년 핀메카니카 재정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6년	2005년	변화율
신규 수주	15,725	15,383	2%
수주 잔고	35,810	32,114	12%
수익	12,472	10,952	14%
영업이익(EBIT)	878	737	19%
순이익	1,020	396	158%
주주지분	5,357	4,598	17%
순금융부채	858	1,100	-22%
투자수익률(ROI)	17.7%	17.5%	0.2pp
자기자본이익률(ROE)	20.5%	9.6%	10.9pp
경제적 부가가치	257	217	18%
연구개발비	1,783	1,742	2%

■ 사업별 수익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6년	2005년
헬리콥터	2,727	2,413
군사용 전자장비	3,747	3,164
항공기	1,908	1,789
우주	764	735
방산장비	1,127	1,143
에너지	978	764
수송	1,368	1,226
기타	229	175

최근 동향

지난해 핀메카니카는 헬기사업 부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바로 보잉과 체결한 차세대 치누크 헬기 공동생산과 터키항공산업(Turkish

Aviation Industry)과 체결한 ATAK 프로그램이다. 특히 ATAK 프로그램은 터키군에 51대의 A129 헬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약 12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다.

군사용 전자장비 부문에서는 셀렉스 센서 앤 어본 시스템스 지분의 25%를 핀메카니카가 소유하게 되면서 올해 1월부터 갈릴레오 아비오니카와 함께 셀렉스 갈릴레오라는 단일 회사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셀렉스 시스템 인테그라티가 알제리와 2억3천만 유로에 이르는 보안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보안시스템 사업 사상 가장 큰 계약을 수주했다.

항공기 사업 부문에서는 알레니아 에어로노티카가 미국의 합동화물기(Joint Cargo Aircraft) 사업 경쟁에서 승리, 향후 미 육군 및 공군에 C-27J 스파르탄 수송기를 공급하게 됐다. 78대의 수송기를 납품하는 초기 계약의 규모는 약 20억 4백만 달러 규모이고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합동화물기 사업에서 선정된 C-27J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도 이미 주문했다. 또한 민간항공 부문에서도 보잉 787 동체 일부를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갖췄으며, 지난해 9월 공개된 수호이 슈퍼제트 100 개발사업에도 알레니아 에어로노티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공기 사업부는 유로파이터 및 F-35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기를 생산하고 있는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도 그리스항공우주산업(Hellenic Aerospace Industry, HAI)과 M-346 훈련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수호이 슈퍼제트 100